

## 기형 신체 및 변형된 신체표현에 관한 쟁점: 마크 퀸(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 (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Issues Surrounding the Expression of Malformed and Deformed  
Humans Bodies in Contemporary Art:  
Focusing on the Art Works of Marc Quinn and Patricia Piccinini**

심상용 (Sang Yong Sim)\*\*

### ABSTRACT

The human body is one of the oldest subjects in the history of art.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non-representational - that is, imagined, deformed or distorted -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increased significantly, and have intensified over time.

In the midst of this contemporary trend in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this paper examines the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by two contemporary artists, Marc Quinn and Patricia Piccinini, in an attempt to summarize the posthuman discourse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provides artistic justification for these expression, and to contrast them with Christian beliefs and worldviews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a Christian interpretation of difficult contemporary art.

In Alison Lapper Pregnant (2000), based on the real-life figure of Alison Lapper, who was born with a congenital deformity, Quinn posits the deformed body as an alternative concept of beauty to traditional notions of beauty. Piccinini fictionalizes monstrous, alien-like hybrid creatures whose genes are a mixture of at least two animal species, including humans. She predicts the emergence of such creatures in the near future and discusses a new ethic of tolerance in the posthuman era.

Thoughts and perceptions based on Christian faith and worldview can be summarized from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on Quinn's deformed bodies and Piccinini's mutant

\* 2023년 11월 9일 접수, 11월 30일 게재확정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syshim61@snu.ac.kr

species : The perception of love for human beings and the world groaning in pain. Awareness of technological civilization going astray and the perception of beauty. The image of God imprinted in existence.

Key words: expressions of the human body, Posthuman discourse, Marc Quinn, Patricia Piccinini, deformed body, hybrid creature, A new concept of beauty, suffering, image of God.

## 서론: 신체표현과 포스트휴먼 담론(posthuman discourse)

사람의 신체는 미술사에서 가장 오래된 모티브들 가운데 하나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체는 정신과 지식, 감정을 담는 표현과 소통의 보고(寶庫)였다. 제의(祭儀) 시대 미술은 인체표현에 공동체의 생존과 관련된 염원을 담았고, 고대는 인체에서 미(美)의 이상을 보고자 했다.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고대적 이상과 사실의 긴장이 유지되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야기되었다. 형태를 변형하거나 신체 일부를 크게 왜곡하는 표현이 일반화되고, 대전 이후로는 변형이나 왜곡의 정도가 경향적으로 더욱 심해졌다. 인간인지 짐승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훼손, 끔찍한 범죄가 남긴 상흔, 내장기관의 노출, 호르몬이나 배설물의 분비 등 여과 없는 극단적인 표현도 목격된다.

이 논의는 2000년 이후 이러한 신체표현 추이의 해석에 있어, 주목할만한 두 작가, 영국의 마크 퀴ン(Marc Quinn)과 호주의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다. 마크 퀴는 1990년대 영국의 yBa 붐을 타고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아온 작가로, 여기서는 선천적 신체 기형을 지닌 실제 인물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현한 <앨리슨 래퍼>를 통해 기형 신체를 미(美)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인식하는 퀴의 반(反)미학적 인식과 주장에 대해 다루어볼 것이다.

호주 작가 피치니니는 인간을 포함해 두 동물 종(種) 이상이 생물학적으로 혼합된 생물체들을 만든다. 극사실적(hyper-realistic)으로 표현된 상상의 생명체들은 외계인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괴하다. 일례로 ‘스카이웨일’이라는 이름의 생물은 거북이와 유사한 머리에, 고래상어를 닮은 거대한 몸통을 지니고 있고, 그 양쪽으로는 전구가 달린 10개의 젓가슴이 늘어진 채 매달려있다. 이러한 혼종 또는 변종 생물체들은 유전자 합성이나 조작과 관련된 과학 실험의 예기치 않은 산물들이라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작가는 그러한 생명체들에 대한 관용을 가까운 미래의 윤리적 지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작가의 신체표현 논의는 두 개의 층위로 구성된다. 첫째는 왜 이 시대의 미술에서 기형 및 변형된 신체표현이 자주 등장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에 반영된 인간존재에 대한 현대적 인식의 단면이 그것이다. 예컨대 극단적인 형태 변형이나 왜곡은 정의가 부재하는 부조리한 시대상과 억압된 자아,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해 혼돈되고 분절된 정신세계에 관한 상징이나 은유일 수 있고, 따라서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이나 구원에 대한 염원이 그것의 역설적인 저변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형 신체나 괴생물체에서 인간 해방의 새로운 단초를 구하려는 두 작가의 표현이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논의의 두 번째 층위는 두 작가의 추구와 그것을 지지하는 포스트휴먼 담론의 해방적 지평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에 기반하는 기독교적 구원의 섭리와 대조해 보는 것이다. 신체 기형을 전통을 전복하는 해방적 미(美) 개념으로 상정하는 입장, 첨단 과학기술의 여결적 산물인 돌연변이 종들이 대거 출현하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섭리의 맥락에서 조명하는 것이다. 이 논의는 다음의 세 관점에서 유의미한 해석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의 인식. 잘못된 길로 치닫는 현대기술문명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의 재구성, 존재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형상.

이 논의의 구조와 지향, 취지는 이러하다. 두 작가의 신체표현과 담론, 그리고 해방된 미래의 염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현상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포스트휴먼 담론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대조하고, 이로써 양자 간의 근원적인 차이를 분별하며, 이 분별 안에서 이 시대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접근을 기독교 신앙의 기반 위에서 세우는 것이다.

현대미술과 그 해석을 전담하는, 주로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인식론에 크게 기대는 이 시대의 주류 담론을 기독교 복음의 지평으로 소환하는 작업에 내재하는 지적 긴장감은 이러한 과제에 따르는 필연적인 도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감이야말로 신앙과 지성의 균형을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가능성의 조건이기도 할 것이다.

## I. 신체표현과 담론

### I-1. 포스트휴먼 신체 표현

이 논의는 현대미술,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의 신체 표현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경향성에 관한 것이다. 장 보드리야드(Jean Baudrillard)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현대에 새롭게 부각된 신화들 가운데 하나다(Baudrillard, 이상률 역, 1991: 190). 현대적 몸은 시효를 상실한 ‘영혼’을 대체하는 탈주와 해방으로서의 몸이자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는 뉴미디어(new media)로서의 몸이다. 오늘날 몸은 과거에 정신과 영혼이 도맡았던 사건들의 대리 수행자이자 그 연대기의 성스러운 후계자이다.

1960, 70년대의 현대미술은 후천적인 훼손이나 선천적인-유전적인- 기형으로 인한 비정형의 몸들, 찢기거나 절단되거나 결핍된 신체들을 대거 소환했다. 이러한 흐름은 두 차례에 걸쳐 연이어진 대전의 상흔, 즉 피폐한 정신과 부조리한 전후 상황에 대한 반응이요 기록이었다. 미국의 크리스 버

기형 신체 및 변형된 신체표현에 관한 쟁점: 마크 퀴ン(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든(Chris Burden)이 폴크스바겐 자동차 지붕 위에 자신의 손을 못으로 박아 고정시킴으로써 예수의 책형을 흉내 내었던 <고정됨>(Transfixed. 1974)을 선보였다.<sup>1</sup> 프랑스의 미셸 주니악은 (Michel Journiac)은 <몸을 위한 미사>(Messe pour un corps. 1969)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혈액으로 반죽한 소시지로 영성체를 수행했다. 이보다 조금 이른 1961년, 이탈리아 작가 피에로 만조니(Piero Manzoni)는 자신의 배설물 30 그램(g)을 밀봉해 만든 통조림에 <작가의 배설물>이라는 제목을 붙여 미술관에서 전시했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 키키 스미스(Kiki Smith), 영국의 길버트와 조지(Gilbert and George) 등 잘 알려진 당대의 작가들이 구토물, 생리혈 등의 같은 체액이나 분비물을 가지고 이 대열에 합류했다. 터너상 수상자(1986)이자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국 대표이기도 했던 길버트와 조지는 퍼포먼스를 통해 신체의 부산물인 대소변을 형이상학의 최상위로 격상시켰다. 이런 흐름이 1980년대로 이어지면서 독일의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는 역사적 기록물들에 자신의 정액을 흘뿌려 자전적 연대기를 구성, 설치했고, 미국의 안드레 세라노는 소변 통에 담긴 십자가 상을 촬영한 사진(1995)으로 스캔들과 명성을 동시에 얻는 데 성공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극단적 폭력에 노출됐거나 혐오스러운 상태의 신체표현이 더욱 전면에서 부상했다. 로버트 고버(Robert Gober), 로나 폰딕(Rona Pondick), 오를랑(Orlan), 매튜 바니(Matthew Barney) 등이 연이어 극적으로 해체된 신체표현을 보여주었다.

세기말로 치달을수록 목적과 방향을 잃은 영혼의 대리물로서, 실낙원의 대체불가능한 기록물로서 극단적이고 혐오스러운 신체표현이 모색되었다. 전통 철학에 기반을 둔 지성은 변화된 환경에서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새롭게 재생된 진화, 새로운 해방을 표방하는 포스트휴먼 담론과 그에 입각하는 신체 개념이 크게 부각되었다.

포스트휴먼 신체 개념은 유전적으로, 외과적으로, 기계적으로 변형, 진화된 신체, 기계나 각종 보철(prosthesis)로 강화되어 인간 신체보다 우월하게 된 사이보그나 유전자 공학, 나노기술, 신경약리학, 기억향상 약물 등에 의해 창조된 진화한 신체 개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폭력적인 근대에 대한 자각, 특히 기술결정주의 문명에 대한 회의로 폐기되다시피 했던 ‘진화’ 개념이 재소환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이 “인간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을 위해 더는 유효하지 않은 휴머니즘을 벗어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로서 진화된 과학을 동반하여 다시 전면에서 등장한 것이다.<sup>2</sup>

1) 1971년 4월에는 졸업 작품으로 캘리포니아 대학 사물함에 몸을 구겨 넣은 채 5일간 물만 마시며 지내기도 했다.

2) 전혜숙, 「현대미술 속의 신체변형」,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된 논문(NRF-2007-361-AL0015).

현대미술 장에서는 IDEO라는 디자인회사 창업자이자 유명한 화상이기도 한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가 일찍이 ‘포스트 휴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에 의하면 그것은 “생명기술론과 유전공학,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합에 따라 변화된 인간의 사회적, 성적 역할을 이해하고 인간을 재정의할 새로운 유형의 미술 형태”에 대한 요구였다(Politi & Kontova, 1992: 66-68). 기계적으로 진화된 사이보그건 생물학적, 유전적 기술에 의해 진화된 신체건, 인간 신체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극복한 인간을 상상하는 것이 미술의 중요한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그렇기에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가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에서 진화된 인간(신체)을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했던 것이다. 포스트휴먼이 되는 것은 인간을 비인간적 존재들에서 분리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이자 종간합일(種間合一)에서 오는 감정적 반응인 공포와 즐거움을 한껏 끌어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포스트휴먼 신체가 “어떤 오래된 상자를 열어 거기로부터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얻어내는 들뜬 기분”을 동반한다고 헤일즈는 말한다.

헤일즈는 생물학적 기술에 의해 세포 수준에서 조정된 포스트휴먼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의 특성들을 잠재적 해방의 단초로 인식한다.

- “주어진 궤도를 따르지 않는 우발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수용.”(탈규범성, 창의성)<sup>3</sup>
- “셀 수 있는 것도 셀 수 없는 것도 아닌, 무엇 혹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재.”(개방성, 열린 가능성)
- “순수 계몽적 주체가 아니라, 혼합물(an amalgam)이자 이질적 구성물들의 집합체”(전체주의적인 근대적 이성의 극복)
- “경계가 지속적으로 유동적으로 재구성되는 물질-정보의 총체.”(유동성, 유연성)<sup>4</sup>

3) 이것은 ‘키잡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가 키잡이의 역할에 필요한 세 개의 강력한 요소들-정보, 통제, 소통-에 의해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의 결합을 비예측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사이버네틱한 인간-기계는 “민첩하게 잘 해내고 변화에 민감하며, 그 자체가 흐름이면서 그 흐름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아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Katherine Hayles (1999), p.8, p.104.

4) Judith Halberstam and Ira Livingston (eds.), p.10.



그림 1. 미셸 주니악, <몸을 위한 미사> (Messe pour un corps), 1969, Galerie Templon.



그림 2. 로나 폰딕, <여우>(Fox), 1998-99. 스테일 레스스틸, 36.8x20.3x96.5 cm

헤일즈에 의하면 포스트휴먼 주체는 인간의 본성에 각인된 거의 모든 부정적 특성에서 자유로운, “경계를 가로지르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becoming) 자유로움과 변화 가능성을 즐겁게 누리는”, 해방되어 낙원을 회복한 존재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질적인 존재, 심지어 이물질, 타자, 타 생물체와의 결합이나 그 결과로서의 혼종성을 마다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진화된 첨단과학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존재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괴물처럼 보이는 것이건, 퀴어나 비정상의 상태이건 그것들이 제지하는 미래로 즐거이 나아가면 그만인 것이다. 교환 가능성, 경계의 해체에는 인간과 기계, 인간과 짐승의 그것도 포함된다(Graham, 2002: 33).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에서 언급된 3개의 ‘경계 침해(boundary breakdowns)’ 중 하나가 인간과 동물의 경계 침해다.<sup>5</sup> 해러웨이는 이 침해가 좋은 침해고, 우호적인 침해로서 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나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인간 신체에 대한 축복이 될 것이기에, 침해해오는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5) 나머지 두 개의 침해는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 물리적인 것과 비 물리적인 것 사이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D. Haraway (1985), p. 154.



## 1-2. 저급한 물질주의에서 현대미술 비평 담론까지

변형되거나 훼손된 신체를 해방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난 세기 초 조르주 바타이유(George Bataille)<sup>6</sup>의 ‘저급한 물질주의(Base materialism)’ 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바타이유의 저급한 물질론이 무신론주의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예컨대 미셸 옹프레(Michel Onfray) 같은 현대 사상가의 ‘무신학’과도 계보적으로 무관하지 않다. 그-옹프레는 “인간에게 자신과 세상을 지배할 힘을 되돌려 주었고 어떤 형태의 감시도 거부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악마를 은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Onfray, 강주현 역, 2006: 145-146). 이러한 종류의 무신학은 니체가 현대적으로 숙성시킨 무신론의 연장으로서 그다지 참신한 것은 아니다.<sup>7</sup> 이를 위해서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 곧 정통파나 어른의 체계에 대한 파괴의 충동이 지난 세기 초 바타이유를 거쳐 들뢰즈와 가타리의 포스트모더니즘 인식론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일련의 흐름이 하버드와 존스홉킨스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의 미술사학과를 중심으로 확장해온 현대미술 비평 담론에서 차지해온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sup>8</sup>

니체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이들의 비평에서 예컨대 ‘규정 가능하지 않은’, ‘경계 설정이 불가능한’, ‘끊임없이 연기되는’, ‘이상야릇하고 정의할 수 없는’ 등의 용어로 번역, 확장되면서, 그들이 현대미술의 동향을 다음의 네 가지의 특성으로 독해할 때 그 각각의 틀을 구성하는데 기여했다: 수평성(horizontalty), 저급한 유물론(Base Materialism), 펄스(Pulse), 엔트로피(Entropy) (정은영, 2012: 239), 이 모든 담론 틀들은 직간접적으로 바타이유의 철학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것으로의 ‘하락’(수평성)이 그렇고, 유혹적인 낭비이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유치한 것의 호소는 직접적으로 저급한 유물론의 연장이며, 모더니즘의 순수 시각성의 탈신체적 자기 완결성에 구멍 내기(펄스)와 에너지의 지속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저하(엔트로피)도 이와 다르지 않다(Bois & Krauss, 정연심 외 역, 2013).

6) 조르주 바타이유는 1920년대에 활약한 초현실주의 이론가이다. 당시에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앙드레 브루통이 우세하였고 형이하학으로 천대받았으나 후기구조주의에 이르러 재조명되면서 미셸 푸코가 서문을 쓰고 전집을 재 발행하기에 이른다.

7) 니체 이전에는 성직자로서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를 설파했던 프랑스의 유물론자 장 멜리에(Jean Meslier.1664-1729)와 유물론의 성서로 불리는 『자연의 체계』를 써서 기독교의 신비성을 까발렸던 폴 앙리 돌바크(Paul Henri Thyry D’Holbach.1723-1789)가 있었다. 그리고 “신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 소외된 것이다” 등으로 신을 해체해, 이후 K.마르크스와 F.엔겔스로 계승되었던 루드비히 포이어바흐(Ludwig Feuerbach.1804-1872)도 있었다. 하지만, 단연 니체가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그가 가치의 전환을 꾀했기 때문이다. 신을 죽였기에 무신론을 궁극적 목표로 여길 이유도 없어져버린 것이다.

8) 하버드 미술사학과와 이브 알랭 부아(Yve-Alain Bois), 콜롬비아의 미술사학과 교수 로잘린 크라우스(Rosalind E. Krauss) 등이 그 흐름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 II. 마크 퀴인 of 기형 신체: 아름다움과 고통에 대한 질문

### II-1. 미(美)의 새로운 개념(?)

어느 날 대영 박물관에서 문득 들었던 생각으로 인해 마크 퀴인은 신체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내용은 이러하다: 사람들은 미술관에서는 신체 일부가 손상된 고대 조각상을 미적으로 감상하지만, 일상에서는 그것을 장애로 인식해 시선을 돌리거나 외면한다. 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생물학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편협함 때문으로, 이로 인해 일상에서 미술관에서 처럼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Quinn, 2006).

퀴인에 의하면 아름다움의 기준은 생물학인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신체적 장애는 오히려 새로운 영웅의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 정상과 장애의 경계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생물학적으로 불완전하거나 결핍된 몸, 비정형의 몸을 새로운 미의 기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신체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의 생물학적 운명을 정복했고, 그래서 축하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Quinn, 2006).”

퀴인은 선천적 장애를 지닌 실제 인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아름다움과 추함, 숭고와 혐오의 이분법에 관여하는 편견을 드러내어, “인간이 상정한 완전함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불가능함”을 상기시키고자 했다(정은영, 2012: 250 ; Quinn, 2006). 비정형성을 통해 정형화된 인식의 해체를 꾀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전형화된 접근이다. 퀴인은 비정형성과 정형성이 비교되는 지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통적인 재료인 대리석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사실 재현의 방식으로 선천적 사지기형을 지닌 인물인 엘리슨 래퍼의 조각상 <임신한 엘리슨 래퍼>를 만들었다.

<임신한 엘리슨 래퍼>는 퀴인이 주창하는 새로운 미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심한 기형을 지닌 래퍼의 신체가 사회가 강요하는 편협한 미 개념을 넘어서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 미래에는 장애를 지닌 인물이 군주나 전쟁영웅보다 더 기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외부세계를 정복해 영토를 확장한 영웅담보다 자신의 신체 조건을 극복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대안적인 미래에 부합하는 서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엘리슨 래퍼의 조각은 크게 확대되어 미래의 기념비로서, 트라팔가 광장의 비어있던 ‘네 번째 좌대’(fourth Plince)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작품으로 선정, 전시되었다.

하지만 선천적 기형을 지닌 인물을 미래의 영웅으로 간주하고, 광장에 설치하는 퀴인의 접근에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말한 ‘미적 무관심’(Aesthetic disinterestedness)이나 ‘관조’ 개념에서 온 무심함의 태도 또한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임신한 엘리슨 래퍼>가 미의 개념을 생물학

적 차원에서 해방시킨 새로운 미래의 신호인지, 아니면 신체적 장애까지 ‘재난과 그로 인한 타인의 고통을 미적으로 즐기기 위해 극장을 찾는’ 문화에의 편승인지, 즉 수전 손탁(Susan Sontag)의 말했듯 재난 상황을 ‘순수한 형태’의 스펙터클로 재현해, 관객으로 파괴와 폭력에 대한, 무심(dispassionate)한 조망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경향의 일환인지는 불확실하고 모호하다(Sontag, 1961: 213).

재난이 일상이 되고 그로 인한 폐해가 생존을 위협하는 오늘날이기에, 퀴이 모델로 삼은 레퍼의 선천적 기형의 문제에 더 가까이 다가설수록, 이 문제를 미적 무관심이라는 특권적인 울타리 내부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더 어려워진다(이윤중, 2015: 70). 이 해소되지 않는 의구심에 관한 것이 다음 장에서 살펴볼 내용이다.

## II-2. 미(美)와 고통의 문제

퀴도 언급했듯 예술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그가 미래의 모뉴먼트로 제시하는 신체 기형이 실제 삶에서 초래하는 고통의 문제가 그것이다. <임신한 엘리슨 레퍼>의 경우, 고통은 그녀의 선천적 기형의 원인으로 인해 더 견디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

레퍼의 선천성 기형은 1957년 FDA 승인으로 콘테르간(Conterga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의약품의 부작용의 산물이었다.<sup>9</sup> 콘테르간은 진정제, 수면제, 임신부들의 입덧 방지용으로, 1953년 독일계 제약회사 그루넨탈(Grunenthal)<sup>10</sup>에서 개발되었고, 된 화학적 화합물로, ‘모유만큼 안전하다’는 문구와 함께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되었고,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형태로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시판되었다.<sup>11</sup>

콘테르간에 포함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성분으로 인해, 시판 후 불과 몇 개월 후부터 콘테르간을 복용한 임신부에게서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 12,000명 이상의 콘테르간 키즈(Contergan Kids), 또는 탈리도마이드 베이비(Thalidomide Baby)<sup>12</sup>들이 태어났다.<sup>13</sup>

9) 1958년 일본에서는 ‘이소민’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됐다. 퀴이 이 연작으로 만든 조각상의 모델들이 모두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0) 독일 그루넨탈은 지난해 매출 1조5000억 원을 기록한 세계 50대 제약회사의 하나로 신규 복합기전의 아편계 진통제인 ‘팔레시아’를 미국 ‘존슨 앤 존슨’과 공동으로 개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올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등 진통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회사다.

11) 탈리도마이드는 최면 효과는 약했지만 독성이 적어서, 위장약으로도 광범위하게 처방되었다.

12) 귓구멍이나 장이 기형이거나 항문이 없거나 팔과 다리가 기형적으로 짧은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

13)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달랐는데, 미국의 FDA 약물 심사위원이었던 프랜시스 켈시(Frances Oldham Kelsey)가 제약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 자체 시험자료 미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의 불충분을 이유로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덕에 미국은 이 비극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그림 3. 마크 퀸, <임신한 엘리스 레 퍼>, 2011, 대리석.



그림 4. 트라팔가 광장의 fourth plince 위에 설치된 <임신한 엘리스 레퍼>, 2011.

태아의 팔다리가 생성되는 시기인 임신 5주에서 8주 사이의 탈리도마이드 복용이 태아의 사지가 불완전한 형태를 띠는 해표지증(바다표범손발증)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사후에 발표되었고,<sup>14</sup> 2010년 제약사 그루넨탈을 상대로 제시된 고소장에는 제약회사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기되었다.<sup>15</sup>

기형아 출산으로 인해 산모와 가족이 받는 충격과 슬픔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산모는 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성취가 일거에 무너지는 절망감에 빠진다. 무력감, 좌절감, 열등감이 뒤섞인 ‘모성 상처’(Mother’s Trauma)의 엄습을 피하기 어렵다(최소영·이미라, 1997: 23). 격한 슬픔, 불안, 비탄, 죄의식, 회피 등의 감정 상태에 잠식당한다. 한 뇌성마비 아이의 부모는 장애아 진단 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나는 끊임없이 슬픔을 갖고 살고 있고, 어느 정도는 항상 그럴 것이다.” 슬픔

14) 사지 기형이 아닌 경우, 심장 같은 내부 장기 기형, 뇌 손상, 시력 또는 청력 상실, 자폐증, 뇌전증(간질) 등이 나타났고, 극심한 신체 기형에 더해 생존률도 매우 낮았다. 제약사 그루넨탈은 시판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1962년 5월 ‘콘테르간’의 출하를 정지했으며, 같은 해 9월에 제품 회수와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 1963년 6월 그루넨탈은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제소되었지만, 오랫동안 해결이 미뤄지다가, 1974년 10월에야 국가와 제약회사가 배상금을 지불했고, 그 밖의 어떤 다른 처벌은 없었다. 정부도 유해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약품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15) 원고 측 변호사는 “탈레도마이드를 복용한 여성들이 기형의 아이들을 출산해 그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 이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을 무시한 점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그루넨탈...탈레도마이드’ 부작용으로 피소, Newis, 2010.10.30. <https://search.naver.com/>

은 ‘만성화된 슬픔(chronic sorrow)’이 된다. 현재 50, 60대를 맞이하는 콘테르간 키즈들의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고통은 그들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sup>16</sup>

고통은 비록 한 사람의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문제다. 아픔, 배고픔, 굶주림, 고통스러운 질병, 고문, 노예제도, 강간, 학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眷念)하셨더라.”(출애굽기 2:24-25) 타인의 고통에 무심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니다.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차단된 안락하고 포근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 다른 사람의 곤경에 무지하거나 무감각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위대한 구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없다.”(Haugen, 이지혜 역, 2011: 19, 34)

적어도 래퍼의 경우, 신체 기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 고통은 노엄 촘스키(Noam Chomsky)에 의하면 그 이면이 거대한 범죄의 체계를 방불케 하는 산업체계의 매우 직접적인 산물이다. 빅 파마(Big Parma)체제로 알려진, 각국의 정부들에 의해 ‘엄청난 보호’를 받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독점적 권리’를 둘러싼 공공연한 결탁의 필연적인 결과물이다(심상용, 2019: 23-39). 사이먼 젠킨스(Simon Jenkins)<sup>17</sup>는 현대사회에서 약이 갖는 권력은 그것을 유통시키는 자본과 산업 체계에서 온다. 이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건너뛰고, 양심선언자를 협박하고, 감시를 게을리하도록 정부 기관과 결탁한 제약회사에 의해 12,000명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이 팔과 다리를 잃은 채 세상에 태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악(惡)의 현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명백하게 반(反)하는 일이다(Weil, 권은정 역, 2008: 212).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잠언 8:13) 이 비극은 연구와 임상에서 최종 판단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악을 제한하려는 노력 가운데 어느 하나만 제대로 작용했더라도, 예컨대 누군가가

16) 지난 2010년 10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 탈레도마이드 약물 피해자들은 기형아 출산, 신체 일부의 부재, 수명단축 등의 책임을 이유로 독일 그루넨탈 제약회사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고, 2013년 11월 20일 스페인 법원은 그루넨탈이 탈리도마이드 피해 소송을 제기한 고소인들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개인당 수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탈레도마이드를 복용한 여성들이 기형의 아이들을 출산해 그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 이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을 무시한 점에 대해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그루넨탈...탈레도마이드' 부작용으로 피소, Newis, 2010.10.30. <https://search.naver.com/>

17) (1943~ ). 영국 <Evening Standard>와 <The Times>의 편집장이었다.

수억 달러의 매출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연구에 참여한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양심선언을 했더라면, 정부 기관이 조금만 덜 부패했더라면,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 이집트의 산파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했다면 화를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집트의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것이다.(출1:17) 이 애굽의 산파들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은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부러워해야 할 도덕적 위엄이요 인격의 힘이다.”(Ferguson, 이용덕 역, 2015: 172.)

엘리스 래퍼의 선천성 기형을 대할 때, 그것을 미래의 새로운 미(美)의 대사로 세울 때, 그것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고통에 대해, 그리고 (12,000명 이상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을 태어나게 만든 사건과의 연관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비극이 왜 끊이지 않는가에 대해 질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쟁영웅과 군주의 영웅담 위에 정초된 문명을 극복한다는 선(善)의 명제와 래퍼의 선천성 기형에서 확인되는 악(惡)의 곪기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간극, 그로 인한 갈등과 지적 긴장과 마주해야 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가 말한 현대적인 것들, 현대적인 삶, 현대예술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무절제’에 대해 질문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베이유에 의하면 이 문제가 단지 방법론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신과 세계가 맺은 원초적 계약을 잃어버린 것”에서 도래하는 필연적인 귀결일 것이다(Weil, 권은정 역, 2008: 204-205). 선언이나 명제와 그 방법론의 상관성의 문제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통상적인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위기는 생명과 삶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기형아 출산은 증가추세에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의 기형아 발생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생아 100명에 4명이 심장기형, 정신박약아, 무뇌아, 신장 이상,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상 등 크고 작은 선천적 기형을 동반한 채 태어난다.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임신기간에 복용하는 약물이나 교란된 생태계, 오염된 먹거리로 인한 유전적 요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 III. 파트리샤 피치니니의 동물 되기와 하나님의 형상

#### III-1. '동물 되기' 담론

2005년 5월 29일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MASS MoCA)에서 개막된 《동물 되기》(Becoming Animal) 전(展)의 취지는 인간과 동물의 중간 단절, 곧 인간과 동물의 삶을 분리시키는 '얇은 막(thin membrane)'의 전향적 이해를 통해, 양자가 "더는 타자가 아니라 그들의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배우고, 이로써 동물을 공감의 대상인 "동료 피조물"로 재발견하는 것이었다(Cox, 2005: 24). 5개국 12명의 작가들이 진화론, 생명공학과 유전자 이식과 관련된 작품들을 출품하여 포스트 휴먼 미술로 가는 문을 열었다.

《동물 되기》전에 나온 작품들 가운데서도 호주 작가 파트리샤 피치니니의 <The Young Family>(2002-2003)에 시선이 집중되었다. 인간과 포유류, 소와 영장류의 종 특성이 뒤섞인 괴생명체, 관람자들은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나 외계인을 떠올렸다. 고치처럼 보이는 가죽 받침대 위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생명체는 인간과 비인간 종의 분리를 당연시하는 인간의 인식을 문제 삼기 위해 만든 피치니니의 피조물로, 즉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2013년 5월에는 피치니니의 또 다른 돌연변이 생물체, 거북이 같은 머리에 거대한 고래상어 같은 몸통, 그 몸통에 달린 각각 전구로 밝혀진 10개의 늘어진 젓가슴을 가진 <스카이웨일>(Sky whale, 2013)이 열기구로 제작되어 호주 캔버라 상공에 띄워졌다. 여러 개의 가슴은 어미 고래의 모유 수유를 환기하는 장치였다. 하지만 시민들은 <스카이웨일>의 몸통 양쪽에서 늘어진 열 개의 거대한 유방 때문에 얼굴을 붉혀야 했다. 무엇보다 <스카이웨일>의 유전적 잡종성이 호주를 대표한다는 작가의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다.<sup>18</sup> 비평가들도 그 괴생명체를 공중에 띄우는 일이 35만 불의 비용을 쓸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아해했다.<sup>19</sup> <스카이웨일>은 길이 34 미터, 무게 500 킬로그램에 제작 기간만 7개월이 걸린, 보통 열기구의 두 배 이상 되는 크기였다. 못마땅한 건 정제도 마찬가지로였지만, 전위미술에 무지하다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판을 피하기 위해 <스카이웨일>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sup>20</sup> 이후로도 일본, 아일랜드, 브라질의 상공에서 <스카이웨일>이 비행했고, 이를 계기로 피치니니는 유명해졌다.<sup>21</sup>

18) 스카이웨일은 호주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공중에 띄워졌다.

19) Clarissa Sebag-Montefiore, The Skywhale Returns to Australia's Skies, and Its Creator Braces for Impact, Oct. 17, 2018. <https://www.nytimes.com/2018/10/17/world/australia/skywhale-patricia-piccinini-yarra-valley.html>

20) 수도권의 야당 지도자인 제러미 핸슨(Jeremy Hanson)은 그것에서 "당혹스러운 치기"를 보았을 뿐이며, 지역의 수장이었던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는 피치니니의 눈에 뭔가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21) 브라질 문화센터(Centro Cultural Banco do Brasil)에서의 전시 이후, 'Art Newspaper'는 그녀를 2016년 세계 방문객 수 1위의 현대 예술가로 선정했다.



앞서 언급했던 《동물 되기》전의 제목에 등장하는 ‘becoming(되기)’은 분리된 유사한 종들 간의 친족관계를 환기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질 들뢰즈(Delieuze)와 펠릭스 가타리(Guattari)의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1980)에서 인용한 개념이다. 중요한 것은 ‘becoming’의 의미에 인간과 동물의 중간 분리를 넘어 대안적 융합으로 나아가는, 탈주와 해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천개의 고원~』의 제 10 고원에서 동물 되기의 모든 의미가 함축된 사례로서 영화 <윌라드> (Willard, 1972)를 든다. 영화에서 주인공 윌라드는 벤이라는 쥐와 함께, 완력으로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는 실업가 마틴을 살해한다. 여기서 윌라드의 ‘쥐 되기’는 벤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가능성의 산물이다. 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신체와 쥐의 신체, 사람의 동작과 쥐의 동작..., 양자가 섞이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분포의 지대를 통과하면서, 그 둘을 섞어 무언가 다른 활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이수경, 2013: 420).” 즉, 양자가 분리되었을 때보다 더 나은 어떤 해방적인 것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치니니는 자신의 창조물인 돌연변이 생물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인식의 전환을 호소한다. 유전자 조작기술에 의해 이미 존재하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존재하게 될 돌연변이 생물체들에 대해서도 인간에게 적용되는 윤리적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achel Kent) 작가는 “왜 우리는 불완전한 것을 사랑할 수 없을까?”라고 물으면서, 우리에게 현대적 삶을 허락한 과학기술의 산물인 만큼, 다른 산물들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Jefferson, 2018).

하지만, 과학기술의 오류로 참혹해질 미래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가정은 과학기술이 야기한 생태학적 수탈의 문제와 급증하는 세계의 비참성에 대한 질문을 흐리거나 희석하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다. 피치니니가 내세우는 미래 윤리는 우리가 지금처럼 기술에 종속된 채 살아가는 한 이러한 문제는 더 확대될 것이고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결과를 양전하게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자조적인 윤리와 유사하다. 예컨대 전술핵이나 핵 발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술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1만여 명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는 비교조차 안 될 재앙이 야기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모든 방사선은 체내에 축적되어 지속적으로 염색체나 생식기관 내 유전자를 파괴해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정신적 장애와 신체 기형을 야기할 수 있다. 방사성 원소가 태반을 가로지르며, 심장의 막이나 뇌의 우반구, 또는 왼팔을 형성하는 특정 세포를 죽이는 등, 온전한 유전자와 염색체를 가진 정상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방사성 물질과 태아 기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연관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진실이 은폐되어왔기 때문일 개연성이 크다(헬렌 칼디코트, p.66).<sup>22</sup> 스리마일 섬 원전 사고(1979.3.28.)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반면, 이와 관련된 증상들을 스트레스와 관련시키는 연구들은 지나치게 많아졌다. 정작 방사성 물질로 인한 희생자에 관한 연구는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 아래 방해되었다(Caldicott, 이영수 역, 2007: 104-105).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진실은 충격적이다. 1997년 미국의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는 핵실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발표와는 달리 21만 2,000명의 미국인이 갑상선 암에 이미 걸렸거나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조차도 결과치가 축소된 것으로, 핵실험에서 흘러나온 스트론튬 90과 세슘137, 플루토늄 같은 다른 방사성 원소들로 인해 유발되었을 암의 유형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Caldicott, 이영수 역, 2007: 106). 이러한 맥락에서 피치니니가 말하는 ‘불완전한 것에 대한 사랑’의 윤리는 진정으로 이 시대적인 사건인 진실 은폐에 대한 인식 안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현대예술 표현에 있어서의 무제절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III-2. 동물 되기와 하나님의 형상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경계의 해체, 식별 불가능성에 기반하는 새로운 배치를 통해, 윌라드의 쥐-되기, 그리고 프로이트의 환자였던 꼬마 한스의 말-되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동물 되기는 인간의 한계로부터의 탈주에 대한 기대고 해방의 일환이다. 들뢰즈의 표현에 의하면 “흰 벽을 뚫고 검은 구멍을 빠져나가기, 경직된 선분을 벗어나기, 습관이 된 배치를 바꾸기, 그리하여 탈 영역화하기”이다(고미숙 외, 2004: 337).

이러한 접근, 인간과 동물을 유사종으로 전제하고 그 친족관계의 복원에 방점을 두는 포스트휴먼 담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내재하는 파괴와 충동의 에너지, 곧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한 니체의 주목에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자신에 잠재해 있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즉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적 에너지에 이르기까지(Guinness, 2008: 58)<sup>23</sup> 저급한 것, 속된 것, 외설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바타이유의 저급한 유물론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천개의 고원’에 이르기까지, 근대기 내내 일관되게 개선되어 온 방향성이다. 이 흐름이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의 《동물 되기》의 그것, 곧 인간과 동물의 중간 경계를 허물고 식별 불가능성의 영토로 도주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22) 일례로 플루토늄은 그것을 발견한 글렌 시보그(Glen Seaborg) 말했듯,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로, 사람이 100만분의 1 그램 이하만 흡입해도 폐암이 유발될 정도다.(헬렌 칼디코트, pp.90-91)

23) 푸코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소르본 대학은 “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기독교 복음과 이에 근거하는 세계관의 맥락에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없앴으로써 스스로를 해방한다는 ‘동물 되기’는 그 내부에 실패가 예고된 여러 탈주 담론들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존재성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선형적으로 내주하는 존재이기에, 사람과 다른 생물 종과의 구분은 영적, 생물학적 차원 모두에서 전복되거나 완화될 수 없는 성역이다. 이 구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직결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성서의 입장은 단호하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 2:20~21)

이런 맥락에서 인간이 짐승에 가까워지기를 지향하고, 동화에 무감각해지는 때는 ‘위’에서 멀어지는 때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존재의 한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몽매무지, 혼계를 싫어하는 것, 총명과 멀어지는 것이다.<sup>24</sup> 인간이 존재적으로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존재 내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물 되기(Becoming Animal)는 그런 의미에서 ‘짐승으로 전락하기’(Turning into Beast) 인 것이다.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안에서 궁극적인 인간 해방의 길은 존재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만 허락된다. 그리고 그 회복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부터만 주어진다.<sup>25</sup> 반면 포스트휴먼 담론은 그 대상이 기계건 동물이건 상관없이 종간 융합을 해방의 가능성의 일환으로 논한다. 베이유에게 이런 접근은 ‘허공을 향해 뿔뿔이는 방식’, 즉 조금 더 높게 뛰면 하늘-자유와 해방의 궁극-에까지 닿을 수 있으리라는, 오래된 ‘헛된 희망’의 후기현대적 버전이다. 그것이 무엇이건 진정한 해방은 ‘더 깊은 아래’로부터 도래하지 않으며 ‘위를 쳐다봄’에서 온다. “쳐다 봄으로서 우리는 문제를 헤아리고 신을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신은 위를 들어 올리고 날개를 달아준다.”(에릭 스프링티드, p.115)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구원은 오로지 ‘위에서 주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트휴먼 담론의 그것과 극명하게 갈린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반쯤 하시고 인간이 반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Ellul, 1972: 192). 인간의 궁극적 해방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일 뿐이다. 더 나아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하다(Ellul, 1989: 82).

24)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 27:21),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시 73:22), “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잠 12:1),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잠 30:2) 등.

25) “11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장11-12)

여호와와 형상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와 임재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민 12:8; 신 4:12, 15-16), 여호와와 형상-형상대로 지으심-이 있는 곳이 곧 여호와가 임재하는 곳이라는 의미다. 아름다움의 원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형상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죄로 물든 세상의 재현에 안주하는 대신, 그 형상을 사모하고 회복에 관여함으로써 더 높은 실체를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예술의 새로운 정의일 것이다. 조시 맥도웰(Josh McDowell)과 밥 호스테틀러(Bob Hostetler)는 이렇게 말한다.

”예술은 하나님의 속성을 (피상적으로라도) 반영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 반예술(anti-art)은 정반대의 것을 달성하고, 비예술(non-art)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McDowell & Hostetler, 유정희 역, 2009: 174.)<sup>26</sup>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피조 세계를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지만, 현재는 피조 세계 전체가 절망 상태에 놓여 신음하고 있다. 피치니니는 문명이 저지른 오류의 결과물을 포용할 것을 촉구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더 악한 오류를 범하는 상태로 내모는 뿌리 깊은 성향으로 인해 파괴된 세계를 책임지는 역량을 지닌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설계한 문명의 오류와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한 존재이다. 16세기 스페인의 신비주의자 라르킨(Larkin)이 말했듯, 지속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 한, ‘다른 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 다른 이는 일차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다음으로는 자연계의 피조물들이다.<sup>27</sup>

포스트휴먼 담론의 지평은 인간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일은 가능하게 만드는 제대로 된 반듯한 지평이 아니다. 동물이나 기계 같은 비인간 종과의 합일을 잠정적인 해방구로 삼는 담론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인간의 절박한 위기상태를 다만 대변할 뿐이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해서 짐승의 그것으로 끝을 내어가는 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3:3)

26) “참된 예술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오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는 것을 반영하거나 강화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야 한다.“(벨 4:8)

27) Larkin, Silent Presence, pp.7-8.

## 결론: 기형 및 돌연변이 신체 표현과 성찰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미 1960년대에 인간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뒤로 기형과 돌연변이, 충상을 입거나 고문당한 신체, 학대당한 신체가 줄을 이었다. 훼손되거나 왜곡된 신체 표현은 부조리한 실존에서 오는 막막함, 절망적 상황, 혼돈과 허무의 반응이었다. 지난 세기말로 접어들면서 분위기의 반전이 있었다. 퀴는 선천성 사지 기형을 지닌 신체를 전통적인 미 개념에 반하는 대안적인 아름다움으로 선언했다. 피치니니는 인간과 비인간 종의 유전적 교합의 산물인 돌연변이 생물체와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퀴의 기형 신체와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생물체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파괴성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퀴의 기형 신체는 탈리도마이드라는 화학물질의 오남용과 결부되어 있고,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생물체들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인 유전자 기술의 오류로 인한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가설 안에서 등장한다. 또한 이 논의는 현실의 악(惡)과 고통,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이러한 신체표현을 지지하는 이론적 틀인 포스트휴먼 담론을 재조명해보았다.

퀴의 <임신한 앨리슨 래퍼>를 통해서 그는 그가 대안적인 아름다움으로 제시한 기형 신체의 이면에 서 글로벌 제약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관여된 진실과 마주하고자 했다. 제약업계의 탐욕이 아니었다면 건강하게 태어났을 12,000명 이상의 탈리도마이드 베이비들은 그들을 아름다움의 인식 전환을 위한 도구로 소환하거나 미래의 영웅으로 명명하는 것에 의해 누락되거나 은폐되어선 안 될 진실이다. 무엇보다 선천적 기형을 지닌 사람들이 겪는 실재로서의 고통이 이 시대와 문명의 필연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사람이나 자연계가 고통에 신음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 루터교회의 목사이자 반나치 운동가 마르틴 니뮐러(Friedrich G. E. Martin Niemöller)가 말했듯, “(사람과 피조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라고 명령하시는 때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Metaxas, 김순현 역, 2011: 422).<sup>28</sup>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와 분리된 것일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인간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성)의 맥락에서,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생물체에 대한 전향적인 읽기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본론의 논의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다. 사람에게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형상으로 아름다움의 원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손상된 형상, 소멸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의 허용으로, 그 안에는 바타이

28) 800명의 독일 고백교회 목사들이 나치에 체포될 당시(1937), 그들의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뮐러가 했던 설교의 한 부분이다.

유의 저급한 유물론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해방으로 간주하는 것, 곧 저 밑바닥의 물질성으로 곤두박질치거나 생물학적 역진화를 수행하는 것과는 정반대 쪽으로의 나아감이 내포되어 있다. 자유와 해방을 표방하는 담론들이 밀려들어, 정신에 허무와 무의미를 수혈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목전의 현상들에 대해 분별하는 것 또한 이 나아감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권의 기형 신체나 피치니니의 변종 돌연변이 생물체들을 포함해 온갖 유형의 훼손된 신체 표현이 한편으론 탈주와 해방으로 간주되면서, 다른 한편으론 무절제하고 자극적인 구경거리로서 소비되는, 인문적인 탐구의 깊이를 반기지 않는 대중잡지들이 좋아하는 것들과 성향적으로 동일한 측면이다. 이는 창조와 본질인 생명이나 진실 탐구와는 동떨어진 것을 해방의 추구하고 뒤섞어 혼돈을 부추기는 것으로, 소비자의 환심을 사는 것에 골몰하는 상품 판촉 전략과 상당히 유사하다. 심하게 훼손된 신체 표현과 상실감과 혐오감마저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분위기 사이는 그리 멀지 않으며, 따라서 오히려 인식을 잠들게 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고미숙·고봉주·권용선·문성환·이진경·진은영·황지현 (2004). **들뢰즈와 문학-기계**. 서울: 소명출판.
- 이지혜 역 (2011). **정의**를 위한 용기. Haugen, G. A. (2009). *Just courage*. 서울: Ivp.
- 강주현 역 (2006). **무신학의 탄생**. Onfray, M. (2005). *Traité d'Athéologie*. 서울: 모티브북.
- 윤진 역 (2021). **중력과 은총**. Weil, S. (1947). *La Pesanteur et la Grâce*.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윤종석 역(2008), **회의하는 용기-회의를 넘어 믿음의 확신으로**, G. Os. *God in the Dark*. 서울: 복있는 사람.
- 이용덕 역 (2015). **헛된 것에 속지 마라**. Ferguson, S. B. (1995). *Pundits Folly*. 서울: 규장.
- 김순현 역 (2011). **디트리히 본회퍼**. Metaxas, E. (2011). *Bonhoeffer*. 서울: 포이에마.
- 권은정 역 (2008). **시몬 베이유**. Springsted, E. (1998). *Simone Weil*, 칠곡: 분도출판사.
- 정연심·김정현·안구 역 (2013).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 Bois, Y. A. & Krauss, R. E. (2000). *Formless: a user's guide*. 서울: 미진사.
- 백종현 역 (2009). **판단력 비판**. Kant, I. (1790). *Kritik der urteilstkraft*. 파주: 아카넷.
- 김희건 역 (1987).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 Ellul, J. (1966). *Politique de Dieu : politiques de l'homme*. 서울: 두란노.
- 이상률 역 (1991). **소비의 사회-그 신화와 구조**. 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서울: 문예출판사.
- 유정희 역 (2009). **톨레랑스의 두 얼굴**. McDowell, J. & Hostetler, B. (1998). *The new tolerance*. 고양: 스텝스톤.
- 이영수 역 (2007). **원자력은 아니다**. Caldicott, H. (2006). *Nuclear power is not the answer*. 서울: 양문.
- 심상용 (2019).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약품 연작의 비평적 읽기: 약을 믿는 것처럼 예술을 믿어야 하는가?. **유럽문화예술학논집**, vol.10. 1(19), 23-39.
- 이수경 (2013). 들뢰즈와 가타리의 동물-되기 연구. **철학논총**, 72, 409-441.
- 이윤종 (2015). 할리우드 지구 종말 SF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인터스텔라>의 디스토피아적 시공간성. **인문과학**, 57집, 67-99.
- 전혜숙 (2007). 현대미술 속의 신체 변형. **현대미술사연구**, vol.31, 133-160.
- 정은영 (2012). 현대조각의 파편화된 형상과 부분 대상에 관한 연구: 마크 퀴 <완전한 대리석상>(1999-2001) 해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미술사교육학회**, vol.26, 231-260.
- 최소영·이미라 (1997). 기형아 출산 산모의 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3(1), 28-38.

- Ellul, J. (1989). *What I believe*, Geoffrey W. Bromiley (trans.)
- Ellul, J. (1972). *The Politics of God and the Politics of Man*, Geoffrey W. Bromiley(trans.), Eerdmans.
- Cox, C. (2005). Of Human, Animals, and Monsters. in Thompson S.(Ed.). *Becoming Animal, Contemporary Art in the Animal Kingdom. Exhibition Catalogue of MASS MoCA*, May 2005-March 2006, MASS MoCA Publication and MIT Press.
- Graham, E. L. (2002). *Representations of Post/Human*, Monsters, Aliens and others in Popular Cul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 Guinness, O. (2008). *Rising to the Call*. PI: Thomas Nelson
- Politi, G. & Kontova, H. (1992). Post Human, Jeffrey Deitch's Brave New Art(interview). *Flash Art*, No. 167.
- Sontag, S. (1961). The Imagination of Disaster. in *Against Interpret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Picador.
- Kent, R. (2005). Nature is as Nature does: Patricia Piccinini's Super-natural Creations. in Piccinini P.(Ed.). *Nature's Little Helpers*. Exhibition Catalogue of Robert Miller Gallery, New York, 22 October-30 November.
- High, K. (2004). *Embracing Animal*, 2004, Glass tubes, DVD, four mini LCD monitors, live rats, steel mesh, plywood and Lexan cage.
- Quinn, M. (2006). Recent Sculptures Catalogue, Groninger Museum. Retrived from <http://marcquinn.com/artworks/single/kiss>
- Jefferson, D. (2018). Patricia Piccinini's hyperrealist sculptures are a call for radical empathy and change, Retri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18-04-12/patricia-piccini-curious-affection-at-qagoma/9638564>

# 기형 신체 및 변형된 신체표현에 관한 쟁점: 마크 퀴ン(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 (Patricia Piccinini)의 작품을 중심으로

## Issues Surrounding the Expression of Malformed and Deformed Humans Bodies in Contemporary Art: Focusing on the Art Works of Marc Quinn and Patricia Piccinini

심상용 (서울대학교)

### 논문초록

인체(人體)는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대상 가운데 하나다. 20세기 후반 들어 비재현적인, 즉 변형되거나 왜곡된 상상된 비재현적 신체 표현이 크게 증가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 논의는 이러한 인체 표현의 현대적 경향 가운데서, 두 현대 작가, 마크 퀴ン(Marc Quinn)과 파트리샤 피치니니(Patricia Piccinini)의 작품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들에 예술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이론적 틀로서 포스트휴먼 담론을 소개하고, 이를 기독교 복음과 이에 근거하는 세계관의 맥락과 대조함으로써 현대미술의 표현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퀴는 선천적인 기형을 지닌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임신한 앨리슨 래퍼>(Alison Lapper Pregnant, 2000)를 통해 전통적 미(美) 개념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미 개념으로서 기형 신체를 내세운다. 피치니니는 인간을 포함해 적어도 두 동물 종 이상이 유전자가 뒤섞인, 괴물이나 외계인을 방불케 하는 혼종 생물체를 극사실적으로 만든다. 그녀는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혼종 생명체들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것들을 관대하게 맞이하는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기독교 복음과 세계관에 기반하는 인식은 다음의 세 관점에서 퀴의 기형 신체와 피치니니의 돌연변이 종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의 인식, 잘못된 길로 치달는 기술문명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존재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형상.

**주제어:** 인체 표현, 포스트휴먼 담론, 마크 퀴, 파트리샤 피치니니, 기형 신체, 혼종 생명체, 새로운 미(美) 개념, 고통, 하나님의 형상.